

힝클리 대관장이 독일에서 회원들과 모임을 가짐

손 디스토울



무더운 여름 날에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8개 스테이크에서 온 8,000여 명의 회원들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말씀을 듣고자 발스포탈에 모임.

1998년 6월 5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매리어트 호텔에서 차에서 내렸을 때, 울리크 형제들 -베나민(6세)과 줄리안(4세)-은 대관장을 쉽게 알아보았다.

그들 형제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오, 우리 애들이 제대로 알아보았군요. 대관장님 사진이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거든요. 그 분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예요.”

힝클리 대관장 부처가 호텔에 도착하자 울리크 형제들은 사촌인 이다(5세)와 막달레나 뢰그너(4세)와 함께 꽃다발을 증정하며 그분들을 환영하였다.

그날 밤 모임에는 8개 스테이크 회원들이 초청되어 있었다. 8,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발스포탈을 가득 메웠다. 참석자들 가운데는 독일 남부의 오스트리아 국경 부근 뮌헨에서 버스 다섯 대에 나눠 타고 올라온 회

원들도 있었다.

이 밖에 라인홀트와 잉그리드 란 형제들과 같은 만하임 지역에서 온 회원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 모임이 예언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말한다. 란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휴가를 줄였습니다. 예언자를 만나는 데 너무 멀어서 올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0명의 합창단이 영어와 독일어로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를 부른 데 이어,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이 있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청소년들에게 “영리하며, 진실하며, 겸손하며, 정결하며, 기도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대관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권고를 받아들여 실행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 크고 강해져 있을 때, 여러분은 강하고, 충실하

며, 정결하고, 기도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힝클리 대관장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진리와 의 가운데 양육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대한 기회입니다”라고 말했다.

대관장은 형제들에게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친구가 되십시오”라고 권고하였고, 자매들에게는 “가정에 사랑과 평화와 자유의 정신을 함양시키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힝클리 대관장을 동행한 마조리 힝클리 자매도 말씀을 했다. 힝클리 자매는 말씀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 “저는 그 분이 하나님의 예언자답지 않게 말씀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철십인이면서 서유럽 지역 회장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힝클리 대관장 부처와 함께 3일 동안 프랑스, 스위스 및 독일에서 가졌던 회원 및 선교사들과의 모임에 관한 것을 돌아본 후 이렇게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 부처는 유럽 중부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회원들과 그 외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말씀은 그 곳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 분들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나아졌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들은 유럽 교회를 확고히 함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입니다. 매번 모임이 끝난 후에는 언제나 시온과 같은 느낌이 있었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된 데 대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어떤 비회원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선함과 젊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 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신성한 평화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98년 6월 13일, 처치 뉴스 기사 제공

캔디 폭격기, 독일 공군 기지에 돌아오다

손 디 스톨

미 공군 퇴역 장교 게일 에스 헬버선 대령이 지난 5월 14일에 서베를린으로 보급품을 공수한 지 50년 만에 이 도시에 돌아왔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숨막힐 듯한 봉쇄망을 뚫고 이 도시의 주민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준 그는 베를린 공수 보급 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7,000명으로 추산되는 관중들의 갈채 속에 환영을 받았다.

헬버선 형제는 베를린 상공에서 캔디와 껌을 손수건 낙하산에 매달아 투하했다 하여 캔디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1948-1949년 베를린 공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캔디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마음 쓰고 있으며 미칠 듯이 괴로운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모든 게 잘 되리라는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헬버선 형제의 말이다.

베를린 공수를 기념하는 행사가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의 활주로상에서 헬버선 형제가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수상과 사리를 함께 한 5월 14일 시작되었다. 헬버선 형제는 다른 연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립된 베를린 상공을 27만 7,000회 이상 비행하면서 210만 톤이 넘는 구호품을 공수한 미·영 군인들의 노고를 찬양했다.

그는 50년 전, 캔디 투하에 관한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던 그 날을 회고하면서 “1948

년 7월에 철조망에서 있었던 두 개의 껌과 30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일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자서전 “베를린 캔디 폭격기”에서, 당시 공군 중위였던 헬버선 형제는 서베를린 템펠호프 공항 근처의 철조망을 통해서 30명 가량의 어린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시간 후, 그는 자신이 배속된 라인마인 공군 기지로 귀환하기 위해 떠나든지 아니면 모험을 무릅쓰고 기지 귀환을 하지 않든지 선택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이후 2, 3년간은 아이들 대부분은 캔디나 껌을 씹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껌이 두 개밖에 없었다. 그는 어린이들이 30명인데 나눠 줄 껌은 두 개밖에 없으니 그들이 싸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네 명의 어린이에게 껌 2개를 나누어 주고는 놀랐다. “내가 일찍이 보아 온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에 넘친 표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헬버선 형제는 말한다. 어린이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다만 껌 종이를 만지며 냄새만이라도 맡아 보자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어린이들을 보면서 헬버선 형제는 마음속으로 만일 자신이 껌 30개를 나누어준다면 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위에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 다음날 자신이 비행할 때 공중에서 껌과 초코렛을 투하한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상부의 승인이 나기까지 기다린다면 결코 실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 계획을 비밀에 부치기로 결심했다.

비행기들이 평균 90초마다 한 대씩 착륙을 하기 때

문에 어느 비행기가 자신의 비행기인 줄을 어린이들은 모를 것이기 때문에 헬버선 형제는 신호로 비행기의 양 날개를 흔들겠다고 어린이들에게 말해 주었다. 캔디를 공중에서 투하하면 땅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손수건이 낙하산 역할을 하도록 캔디에 묶기로 했다. 헬버선 형제는 자신과 비행 승무원 두 명의 휴대 식량권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줄 캔디를 확보해 놓았다.

그 다음날 정오 비행 때 헬버선 형제는 템펠호프 공항에 이르러 자신의 폭격기 양 날개를 상하로 흔들었다. 그러고 나서 조그만 캔디 꾸러미들을 활송 장치를 통해 투하시켰다. 어린이들이 캔디 낙하산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형제가 비행기의 짐을 내려놓고 이륙할 준비를 마쳤을 때였다. 신이 난 어린이들이 철조망 사이로 조그만 낙하산 세 개를 흔들었다.

헬버선 형제와 그의 승무원들은 1주일 동안 반씩 6주 동안 계속 캔디 투하를 했다. 매번 어린이들의 수는 늘어났고, 헬버선 형제는 매번 캔디 투하를 비밀로 지키느라 조심스러웠으며 단지 비행기 날개를 흔들어 투하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어린이들은 헬버선 형제를 “날개 흔드는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투하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한 그 다음날, 헬버선 형제는 사람관심로 호출되었다. 대령은 “이것 보라”고 하며 독일 신문 ‘포랑크푸르트 차이퉁’지에 나온 기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네는 어제 베를린에서 하마터면 어느 신문 기자의 머리를 캔디 바로 맞힐 뻔했대네. 그가 이 이야기를 유럽 전역에 보도했어.”

그후 캔디 투하는 군부의 지원하에 더욱 자주 실시되었고 마침내는 “Little Vittles 작전”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캔디 투하에 관한 뉴스가 세계 전역에 보도되었다. 헬버선 형제는 미국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의 초청을 받아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캔디 및 낙하산 구입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날 헬버선 형제의 부부는 프로보 유타 오크 힐즈 스테이크의 오크 힐즈 제1와드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처지 뉴스, 1998년 5월 23일자



헬무트 콜 독일 수상(왼쪽)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게일 에스 헬버선 형제가 1948-1949년 봉쇄 기간 동안 조종사로 근무하며 베를린에 보급품을 공수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 촬영: 로이터 통신사

중미의 교회

교회 중미 지역의 일곱 개 나라 -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 는 매년 통산 2만 5,000명 가량의 새로운 회원이 늘어나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 교회 소식을 더 알아보기 위해 교회 잡지부는 칠십인이자 중미 지역 회장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와 지역 회장단으로 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줄리오 이 알바라도 장로와 이 이스라엘 페레스 장로와 면담을 가졌다.

질문: 중미 지역 나라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답: 과테말라 교회는 현재 회원 수가 약 17만 7,000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는 중미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입니다. 지역 사무실은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성전인 과테말라 성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에 인접한 과테말라 선교사 훈련원은 지역 내의 각지에서 온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2,200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약 900명이 중미 출신입니다.

벨리즈는 120여 년 간의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1970년대 후반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21만 1,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카리브 제도에서 일하러 온 아프리카 인의 후손들입니다. 벨리즈에서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현재 회원 수는 2,300명입니다. 온두라스 산 페드로 술라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 24명이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나라입니다. 엘살바도르는 20여 년 간 내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세가 비교적 평화롭고, 주님의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약 7만 9,000명의 회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미의 모든 나라 중에서 현재 교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온두



줄리오 이 알바라도 장로



윌리엄 알브레드포드 장로



이 이스라엘 페레스 장로

라스입니다. 주된 성장 지역은 고온 다습하고 편평한 해안 지대인 산 페드로 술라 부근이지요. 이곳에는 국제 과일 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작물 분야의 생산을 비롯한 제조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회장단이 강조하고 있는 신권 지도자 훈련은 특히 온두라스에서 큰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는 약 8만 4,000명의 회원이 살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얼마 전까지도 공산 독재 치하에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대통령의 영도하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는 아직 스테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나 2만 6,000명 가량의 회원들이 서너 개의 튼튼한 지방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회원 수는 여타 중미 나라들의 평균치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약 70년 간 안정된 민주 정체를 유지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분란에 휩싸인 중미 나라들의 안전한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생활 수준은 중미에서 최고이며 많은 소비재를 구할 수 있고 튼튼한 하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 수는 약 2만 9,000명입니다.

파나마는 지금 1999년에 있을 파나마 운하 관리 인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미 본토에서 이주한 수백 명의 미국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이 나라를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지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 인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약간의 정치적 소요를 겪었지만 교회 사업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거의 3만 2,000명에 이릅니다.

질문: 중미 교회의 장점을 들으면 무엇입니까?

답: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미의 교회는 지금 견실한 신권 하부 조직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자 훈련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신권 소유자 1명당 회원 10명이라는 이른바 "목자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선교사들은 장차 열기세백 신권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체 침례 수 중 성인 남자 침례 수를 적어도 25 퍼센트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고용 자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미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자를 내는 곳이라 하여 우리 교회에 좋은 평판을 주고 있습니다. 중미에는 또 정치계와 실업계 상층부에 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각국의 정부, 지역 사회 및 다른 교회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반대하는 이 지역의 유력 종교 단체도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해서 마이크로 필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있지요.

지금은 중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교적 평화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를 통하여 전지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타국 회원들의 과테말라 성전 방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테말라 성전의 의식 참여자 숙소는 약 1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해 놓아야 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성전 활동이 대략 40퍼센트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다

자신을 잘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중미의 새로운 개종자들은 성전에 가는 것을 목표로 갖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회원들과 복음 선교사들은 늘 개종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개종자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최근에는 회원 기록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조(팀)를 짰습니다. 회원 봉사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찾고 그들의 기록을 새로 고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바치고 있지요. 중미 교회의 이 모든 노력과 발전은 보다 성숙된 복음 생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성장뿐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힘과 헌신을 지향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임 선교 부장



데이비드 에프 에반스 선교부장 부부

데이비드 에프 에반스(46세) 형제가 일본 나고야 선교부의 신임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솔트레이크 엔사인 스테이크 산하 엔사인 제6와드 회원인 에반스 선교부장은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스테이크 청남 회장, 스테이크 선교부장, 감독, 감독단 보좌 및 스카우트 지도자를 역임했다. 그는 유타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변호사이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데이비드 시 에반스와 비벌리 조이 프리윈 에반스 슬하에 태어난 에반스 형제는 매리 디 세퍼드 자매와 결혼하여 여덟 명의 자녀를 두었다.

상호부조회

“막중하고 엄숙한 책임”

어느 노년의 모임에서 한 신권 지도자가 청중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개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열띤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 무렵에 이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해 폭 넓은 관심을 갖는 것은 개심했음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표시가 됩니다. 이노스는 개심한 후 “[그의] 동포 니파이인들의 번영을 비는 마음이 솟아나, 하나님께 [그의] 온 심령을 기울여 저들을 위해 간구”(이노스서 9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들딸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하나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또 원하는 대로”(모사이사서 18:29) 기꺼이 나누려는 의지를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하려 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서로 떼어 놓고, 우리에게 상대방을 위한 시간이 없다는 느낌이 들게 하며, 우리 스스로 간증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간증을 갖도록 돕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방문 교육은 사탄의 이러한 계락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상호 부조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방문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규칙과 어떤 수치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무 지명을 한 다음, 각 자매에게 왜 그녀가 방문 지명을 받아 회원들을 보살피도록 선택되었는지 알려 준다.

- 각 자매들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 방문 교육을 첫 번째 안식일 모임의 토론 주제로 삼는다.

- 비판적이기보다는 정감 어린 방문 교사 접견을 실시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세상에는 굶주리고 공핍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회원 중에도 고통, 역경, 외로움, 두려움 등으로 절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누군가가 굶주렸다면 먹이거나 돕고 용기를 주며, 진리와 의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 영을 양육해야 할 크고 엄숙한 임무가 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86쪽)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부터

청녀회

“상호 향상 모임을 의미 있게 진행함”

여러분은 청녀 지도자로서 매주 상호 향상 모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십니까?

“(청녀 지도자 지침서[1992년, 2쪽]. 이 권고 사항은 주일 공과와 상호 향상 모임 활동에 적용됩니다.

영감을 구할 때는 상호 향상 모임 활동은—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갖는 규칙적인 주간 활동(청녀 지도자 지침서, 8쪽)임을 명심하십시오. 상호 향상 모임은 또한 가사 기술과 음악, 연설, 무용, 문학, 및 시각 예술 등을 감상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시, 기사 기술-파이를 만드는 청년들

성찬식에서 하는 청소년의 영적 말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 회장단은 효과적인 말씀의 필수 요소에 관한 워크숍을 준비한다.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된 꿀벌 반원 한 명이 활동적이 되려 노력하며 친구 또한 필요로 한다. 그 때 고문이 이 회원이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반 회장단이 그에게 반원들에게 기본적인 춤 동작을 좀 가르쳐 달라고 권유한다.

여러분은 각 개인의 필요 사항을 고려할 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청년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

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재능이 없다거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빛,”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99쪽)

우리는 세상의 “번쩍이는 화려한 것”들과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주님의 영이나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보이는 사람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항상 모임 활동의 초점을 복음에 두며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청년 가치관을 가르치고 청년의 가족들과 교류를 넓히며, 간증을 강화시키고 지도력을 발전시키며, 재능을 개발하고 안식일 공과를 견실하게 하며, 건전한 환경 속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고 흥미를 일깨우십시오.

본부 청년 회장단으로부터

상호 항상 모임을 준비할 때는 각 청년의 필요 사항을 영감적으로 민감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등협회

신앙의 초석

앞으로 몇 달 동안 1 백만 명도 넘는 초등협회 어린이들이 전세계 143개 국가에서 성찬식 발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실한 초등협회 회장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들에게 1998년 개요에 있는 “난 경전이 참됨을 알고 있어요”라는 원리를 충실히 가르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을 통해 어린이들은 어떻게 경전을 활용해 자신의 생활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영적으로 감수성이 강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초등협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어린이들의 삶을 영원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64:33 참조) 물론 부모들에게도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초등협회는 소중한 도움의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협회의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를 위한 초등

협회 유의 사항[1996년], 1쪽). 우리는 예언자 말씀을 따르고자 하며, 어린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4쪽 참조)

초등협회 회장단은 신권 지도자들에게서 1999년 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1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는 1999년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언이 담겨 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신앙을 향상시키고 그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충실함에 감사드리며, 이 소중한 진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자신의 거룩한 임무임을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복음을 공부하며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을 받기 위해 스스로 준비할 때, 여러분은 성신의 영감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42:14 참조) 또한 여러분이 자주 어린이들에게 간증을 전할 때, 성신은 여러



그림: 엘 펠슨,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이들

분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 주시며, 그들에게 구세주를 사랑하며 따르겠다는 소망을 갖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초석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척 많이 필요한 평강과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으로부터

주일학교 창립을 기념함

바야흐로 우리는 교회의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공식 교육 조직인 주일학교 창립 1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방법이나 기술상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의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각 개인과 가족들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1849년 12월 9일 일요일, 리처드 발랜타인은 여러 명의 이웃 어린이들을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모아 경전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심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참 복음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그들을 모으는 데” 목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물론이즘에 관한 백과 사전, 제4권[1992년], 3:1424)

주일학교는 창립 이래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1899년, 교회는 주일학교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이 조직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50주년 되던 해에 개봉 예정이던 어떤 글이 담긴 상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주일학교 지도자들로부터 온 편지가 한 통 있었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향후 50년 간에 걸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주일학교의 이 위대한 사업의 목적에 대한 순간이라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

들을 가르쳐 말일성도들을 그러한 원리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1949년, 주일학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또 하나의 상자가 정성껏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말일성도들이 살고 있는 전세계 여러 곳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100주년 기념 상자는 주일학교 기념물로 포장되어 있으며, 1999년 4월에 공식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998년 7월부터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일학교와 그 훌륭한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늘 소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과 가족들은 경전을 공부하고 주일 학교에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힘이 강화된다는 점도 주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보충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이다. 이 제언과 부합되는 공과나 지침이나 활동을 위해서는 이번 호의 이린이란 6·7쪽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다”를 참조한다.

1. 어린이들이 로마서 1장 16절을 암기하게 하기 위해, 잠시 한 어린이에게 다음 단어나 구절을 말하게 하는 식으로 성구를 여러 번 반복한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어린이에게 추가 단어나 구를 이야기하게 한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한 번씩 돌아가며 암송할 때까지 어린이들과 함께 성구 암송을 계속한다.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들을 지지했던 과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2. 감독이나 지부장의 허가를 얻어 몇몇 귀환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 사업에 대해, 특별히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경청해 이를 받아들이었을 때 느낀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한다. 또한 그들에게 어린이들이 선교 사업을 도와 준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각 어린이로 하여금 여러분 지역에서 봉사

하는 선교사에 대해 짧은 메시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어린이들에게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적한다. 이들과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들이 부름 받아 봉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또한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준다. 어린이들이 원을 지어 앉도록 한다. 한 어린이에게 공기(공주머니)를 던져 주면서 교회 회원이 아닌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 아는 바를 이야기 하라고 부탁한다. 이어서 그 어린이에게 공기(공주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게 한다. 모든 사람이 한 번씩 할 때까지 계속한다.

4. 종이 한 장에다 다음 이름들을 적는다: 예녹(모세서 7:18-19, 62), 요나(요나 1-3), 암몬(엘마서 17-19; 26:8-13), 바울(사도행전 26:1-2, 22-29), 엘마(엘마서 8:8-32). 칠판에 이 이름들을 붙인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해 줌으로써, “이 사람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게임을 한다. 각각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이것은 누구 이야기일까요?”라고 묻는다. 어린이들에게 참조 성구를 확인하여 정답을 찾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어린이 노래 책, 77장) 어린이들에게 음악 지휘 연습을 시킨다. 그런 다음 선교 사업중이나 기타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 곳에서든 노래를 지휘할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5.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극화시키기 위해 사도행전 10장을 대본으로 사용한다. 베드로, 고넬료, 고넬료의 종들, 베드로의 친구들, 그리고 천사 역을 맡을 어린이를 각각 지명한다. 의상이나 명찰은 단순한 것으로 사용한다. 해설자가 이야기를 낭독하면 어린이들이 해당 장면을 연기하도록 한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어린이들에게 질문한다. 이로써 베드로는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우리 역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6. 보충 자료가 필요할 경우, “150 YEARS IN PARADISE,” THE FRIEND, 1995년 3월호, 4-6쪽; “SOWING MISSIONARY SEEDS,” THE FRIEND, 1995년 8월호, 8-11쪽; “JESSICA, THE BOOK OF MORMON, AND BROTHER LAW,” THE FRIEND, 1997년 8월호, 4-6쪽을 참조한다.

질문: 우리는 구도자나 새로운 개종자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구도자나 개종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미소로써 인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모임을 계획하거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스테이크 선교사나 복음 선교사와 친해짐으로써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동대문 스테이크 면목 와드에서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영어 회화에 회원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감독과 몇몇 회원들은 토요일에 사람들에게 농구와 탁구를 가르치며, 많은 회원들이 미소로 인사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시한다.

(동대문 스테이크 면목 와드 정유성 형제)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교리와 성약 38편 24절) 이 말씀처럼 따뜻한 미소와 사람스런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며 교회 모임과 활동 모임에 연락을 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가정의 밤에 선교사와 함께 회원 집을 방문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줄 때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정은 신성한 재산이며, 복음의 씨앗을 철저히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원주 지방부 원주 지부 장현문 형제)

나 자신이 교회에 처음 왔던 때를 생각해 보면 답이 저절로 주어진다. 친구의 소개로 아니면 길에서 선교사를 만나서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와드로 왔을 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더 들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장실 위치에서 비롯하여 모든 것이 낯설지만 하지 않

았던가. 심지어는 회원들의 대화 가운데도 생소한 어휘가 많지 않았던가.

그렇다. 구도자/개종자의 눈높이로는 서먹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개종자 또는 구도자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침례 받은 회원의 사진과 간단한 소개를 알림판에 게시하면 어떨까? 특히 부모가 회원이 아닌 청소년 개종자일 경우에는 와드 내의 성인 회원(가급적이면 기혼자) 한 사람이 복음 토론을 처음 할 때부터 후견인 지명을 받아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에게도 중학생 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군에 있을 때나 활동이 저조할 때를 마다하지 않고 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형제님이 계신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여용원 형제)

새로운 개종자 또는 구도자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 날 수 있어야 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매일 개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혼자 앉는 일이 없도록 해서 늘 형제 자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김기석 형제)

우리가 구도자나 새로운 회원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선교사에게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거나 직접 그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초대하는 것이 구도자나 새로운 회원들의 친숙함을 더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늘 안식일에 참석할 때 미소로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어디에 참석해야 할 것인지 친절히 설명해 준다. 처음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하게 마련이므로 회원들이 그들에게 먼저 다

가가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건넨다면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김희진 자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많은 것이 좋았지만 특히 친절하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 좋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구도자였고 갓 개종한 자였 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특히 그들을 위해 친절함과 미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두 번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이 처음 개종할 당시를 들려주는 등 공통된 믿음 위에 서서 그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 안종원 형제)

개종자나 구도자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분위기에서 더 많은 느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오래 전에 알았던 친구처럼(실제로 우리 전세에서부터 알아 왔던 친구였음을 기억하며)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먼저 열고, 인사도 먼저 하고, 웃음도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그들도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며, 결국은 완전한 개종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김현주 자매)

구도자나 개종자에게 자신을 먼저 소개(이름, 나이, 직업, 살고 있는 곳, 전화 번호, 교회의 부름 등)하며 구도자나 개종자에게 자신을 소개한 만큼 물어 보고 사랑을 표현(식사 초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줌, 책 등을 선물)하면서 구도자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것을 파악하여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이야기의 화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끌어 낸다.

(서울 동 스테이크 동두천 지부 배중호 형제)

한국 말일성도 50년사 역사 편찬 위원회 발족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 위에 회복된 복음이 전파된 지 5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는 '한국 말일성도 50년사 편찬 위원회'가 지난 8월 14-15일 양일 간 서울 스테이크 삼청 와드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지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 모임에는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김종열 장로와 역사 편찬 위원장으로 부름 받은 구분동 형제, 한국 공보 위원장 이도환 형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역사 편찬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의 위원(아래 명단 참조)이 참석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 모임에서는 김종열 장로의 환영 인사에 이어 고원용 장로의 경과 보고 그리고 편찬 방법과 내용에 관한 토론과 소분임조 편성이 이루어졌다.

편찬 완료 예정인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역사 편찬 위원회에 관하여 알아 본다.

1.역사편찬위원

위원장: 구분동(서울 동)

위원:

허용환(서울) 이우영(서울 동)

구종식(서울 북) 조양호(영동)

김정열(서울 서) 이재훈(강서)

조광열(안양) 이영희(수원)

이성렬(인천) 김대연(청주)

윤화중(대전) 박주인(전주)

김광운(광주) 차대환(마산)

김정열(부산) 인준덕(마산)

김승겸(관리 본부)

2. 50주년선정시점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각각 회복된 복음이 전파된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었다. 우선 1951년 7월에는 한국 교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호직 박사가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유학하던 중 사스케하나 강에서 치례를 받았다. 그리고 1955년 8월 2일에는 당시 십이사도였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가 한

국을 방문하여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잠충동의 한 아산에 올라가 한국을 헌납하였으며, 1956년 4월 1일에는 당시 일본에 본부를 둔 북극동 선교부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최초로 입국하여 복음 전도를 시작했다. 이어서 같은 해 6월 3일에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지부가 탄생했다.

이러한 초기의 한국에서 교회가 전파되는데 전환점이 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서 언제를 한국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는데, 대체적으로 교회 본부와 총관리 역원 및 지역 관리 역원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헌납된 1955년 8월 2일을 한국에서 교회 역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50주년이 되는 때는 2005년 8월 2일이며, 한국 교회 50년사는 이때까지 출간될 계획이다.

3.한국교회50년사구성내용

한국 교회 50년사는 주요 변환 시점을 중심으로 한 시대로 구분되어 기술될 예정이다. 역사 편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장: 한국 지역 헌납(~ 1955년 8월)

지방부 시대(1955 ~ 1962년)

선교부 시대(1962 ~ 1973년)

스테이크 시대(1973 ~ 1985년)

성전 헌납 이후(1985 ~)

한국 말일성도의 오늘(2002년 기준)

21세기 교회 및 말일성도의 미래상

4.한국교회50년사편찬일정

2005년까지 발간될 예정인 한국 교회 50년사의 편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역사 자료 수집: 1998년 9월~2002년 12월 말

원고 작성: 1999년 7월~2002년 12월

영문 원고 작성: 2002년 1월~2003년 12월

지역 및 본부 역원 검토: 2003년 7월~2004년 12월

한국 교회 50년사 발간: 2005년 상반기

한국 교회 50년 사료실 개관: 2005년 하반기



한국이 복음 전파를 위해헌납 되던 날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1955년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 일정 중 8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이 기간 동안 미군 회원 및 한국인 회원들과 많은 모임을 가졌으며, 8월 2일에는 한국 땅을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을 일정별로 교회 본부에 소장된 당시의 기록을 통해 알아본다.

1955년 8월 1일 월요일

조셉 필딩 스미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하 회장), 힐튼 에이 로버트슨 부장, 에이치 그랜트 허튼 부장과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중령은 다치카와 공군 기지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 그들은 오전 10:00시에 군용 수송기 편으로 떠나서 그날 오후 2:40에 한국 K-14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오후 7:30에 스미스 회장과 함께 동행한 수행원들은 서울에 있는 8군 본부 예배당에서 그룹 지도자 모임을 가졌다. 호저 엠 래미 준장은 스미스 회장과 수행원들을 위해 서울에 있는 자신과 부관들의 집을 임시 숙소로 제공했다.

1955년 8월 2일 화요일

오전 8:30에 스미스 회장과 수행원들은 8군 사령관인 콜리어 준장을 예방했다.

오전 9:25에 스미스 회장과 수행원들은 미국 대사관을 예방했고 일등 서기관이 스미스 회장을 영접했다.

오전 10:00에 8군 예배당에서 서울 대회의 첫번째 모임이 열렸다. 이 대회에 말일 성도 군인들과 교회의 한국 회원 및 구도자들이 참가했다. 말씀은 한국인 회원, 로버트슨 부장, 히튼 부장 순으로 했다. 주연사로 스미스 회장이 말씀했다.

오후 2:00에 대회의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간증을 전하는 시간으로 한국인 성도들과 군인들이 간증을 했다. 주연사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말씀했다.

그날 오후 스미스 회장과 수행원들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 한국 땅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다. 이 역사적인 행사에 함께 했던 사람은 힐튼에 이 로버트슨 부장, 엠 그랜트 히튼 부장,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장로, 로드니 더블류파이 장로, 김호직 장로, 크리스 이 체이스 장로와 엘런 이반스 장로 등이었다.

밤에는 교회의 한국 회원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서 로버트슨 부장은 한국을 북동부 선교부의 한 지방부로 조직했다. 김호직 장로는 스미스 회장에 의해 지방부장으로 성임되었다. 제시 슈메이 장로가 제1보좌로 부름 받았다.

1955년 8월 3일 수요일

아침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과 수행원들은 서울에서의 예배당 신축을 위한 부지를 살펴보았다.

오후 1:35에 스미스회장, 로버트슨 장로, 히튼 장로, 슬로버 중령 등이 비행기를 타고 무산리로 알려진 비무장지대로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 이른 오후에 도착했다.

오후 2:00에 무산리 군인 대회의 첫번째 모임이 열렸다. 스미스 회장은 주연사로 말씀했다.

저녁에 스미스 회장과 수행원들은 유엔 정정위 수석 대표인 하란 파스 중장이 개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오후 7:00에 대회의 두 번째 모임이 열렸다.

*이 날 이날 이후 스미스 회장 일행은 8월 4일과 5일 부산에서 모임을 갖고 일본으로 떠났다.

한국 교회 50년사는 우리 후손들의 신앙 발전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임

-구본동 한국 교회 50년사 편찬 위원장 인터뷰-

질문: 한국 교회 50년사 편찬 위원회는
어떻게, 왜 조직되었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다가오는 2005년이면 50년이 됩니다. 미국에서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설립된 지 170년,

그리고 이웃 일본에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된 것에 비하면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의 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5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한국의 지도자들과 교회 본부의 지도자들도 한국 교회 역사 편찬의 필요성을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 본부에서는 한국 교회 역사 편찬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였고, 저는 이 책의 편찬을 위한 공식적인 책임자로 교회 본부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나 물론경 시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선조들의 기록이 백성들의 신앙과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했듯이 한국 교회 50년사도 후일 우리 후손들의 신앙 발전에 중요하고도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질문: 한국 교회 50년사에 수록될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시점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구분해서 기술이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지역 헌법, 지방부 조직, 선교부 조직, 스테이크 조직, 서울 성전 헌법 등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부분적인

내용과 더불어 우리의 50년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우리를 확인하며, 미래의 한국의 교회상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수록될 것입니다.

질문: 한국 교회 50년사 편찬 위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한국 교회 50년사는 국배판 500쪽 분량에 한글판과 영문판이 동시에 출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역사 편찬 위원들은 바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기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2002년까지는 자료를 수집하고 1999년 7월부터는 자료 수집과 더불어 저술을 하게 되는데 역사 편찬 위원들은 스테이크/지방부 별 소장 역사 자료 수집, 오래된 회원들의 개인 소장 자료 수집 및 인터뷰, 귀환 선교부장 및 선교사, 해외 거주 한국인 회원들로부터의 자료 수집, 본부 소장 자료 수집 등을 하게 됩니다.

질문: 한국 교회 50년사 편찬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소감과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위대한 일의 책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주실 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으로 훌륭한 역사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처음 시도되는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 자료들을 역사 편찬 위원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 우리는 성신의 도움으로 이 땅에 훌륭한 교회 역사 자료가 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구본동 위원장: 구본동 형제는 1963년 7월에 침례를 받았고, 스테이크 서기, 고등 평의원, 감독,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및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 전력 중앙 교육원 교수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서울 스테이크 대회

9월 12, 13일 양일 간 서울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자인 엘 라이오넬 캔드릭 장로의 감리하에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약 540여 명의 구도자와 회원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일관되게 우리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종자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며, 개종자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특별히 일요일 총회에서 농아 지부의 전소희 자매가 주변의 많은 농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기쁨을 간증으로 전해 주었다. 그리고 캔드릭 장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며,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삼청 와드 전진호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



새로 개편된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단. 앞줄 왼쪽부터, 제1보좌 배영철 형제, 손승주 스테이크 부장, 제2보좌 최종찬 형제

동대문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9월 5, 6일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이 레이 베이 트먼 장로의 감리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후반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는 가족 선언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저녁 스테이크 역원 훈련 모임에서는 선교 사업에 초점을 둔 김종열 장로와 해리스 선교부장의 교육이 있었으며, 이어서 베이트먼 장로는 참석한 모

든 성도들에게 이웃이나 친구를 주님의 앞에 데려오기 위해 힘쓰도록 권고했다.

일요일 대회에서는 9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던 조만구 부장이 해임되고 제1보좌였던 손승주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배영철 면목 와드 감독이 제1보좌로, 고등 평의원인 최종찬 형제가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새로 부름 받은 스테이크 부장단과 조만구 전임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과 간증이 있었으며, 베이트먼 장로는 가족과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33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이문 지부의 오정택 형제, 이재현 형제, 이기문 형제와 춘천 와드의 조운식 형제가 장로로, 태릉 와드의 김원백 형제가 대제사로 각각 지지 받았다.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

서울 북 스테이크는 9월 5, 6일 양일간 녹번 와드에서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박병규 형제(일산 와드)가 축복사로 부름을 받았으며, 신낙규 형제(불광 와드)와 최흥기 형제(모래내)가 대제사로, 박기용 형제(원당 와드)와 김중성 형제(마포 지부)가 장로로 각각 지지되었다.

“복음을 전파함”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교회 지침서 활용, 열쇠를 지닌 신권 지도자의 권고에 따름(교리와 성약 43:7-8), 기도(교리와 성약 8:1-3)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초등학교 회원인 손정균 형제는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얻은 간증을 전했으며, 선교 사업중에 부친이 작고하는 경험을 하고 최근에 귀환한 시동현 형제는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선교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부친의 권유는 주님의 뜻”이었다고 간증했다. 귀환 선교사인 이재학 형제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여 도움 받은 것에 대해 간증했고, 김해정, 고종혁 형제 부부는 스테이크 부장과 회원들의 도움으로 아들 딸과 함께 일가족이 한 달 전 침례 받은 것

에 대해 감사의 간증을 전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침례 받은 김규현(일산 와드) 형제는 회원이던 아내의 도움과 현지 회원들의 영향으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전했고, 박병규 축복사는 새로운 회원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회원들의 임무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은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교리와 성약 6:13-14)이라고 말했다.

강서 스테이크 대회



새로 개편된 강서 스테이크 부장단. 앞줄 왼쪽부터, 제1보좌 이경준 형제, 길정권 스테이크 부장, 제2보좌 이호상 형제

강서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9월 5, 6일 양일에 걸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의 감리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가 함께하는 가운데 열렸다.

브라운 장로는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가족 선언문의 내용을 강조하여 말씀하였다.

토요일 역원 훈련 모임에서는, 주로 선교 사업에 관하여 고원용 장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책임’에 관하여, 민혜기 선교부장이 ‘침례의 과정과 침례 후 개종자에게 친구가 되고 부름을 주는 것’에 관하여, 브라운 장로가 ‘회원 선교 사업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말했다.

일요일 총회에서는 7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였던 김두성 부장이 명예롭게 해임되고, 제1보좌였던 길정권 형제가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지지 받았으며,

제1보좌에 이광준 형제, 제2보좌에 이호상 형제가 지지 받았다. 그리고 최충무 형제와 9명이 장로로, 하현수 형제가 대제사로 지지 받았다.

김두성 전임 스테이크 부장은 고별사를 통해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7년 전 부름 받을 때 출애굽을 명령받은 모세의 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정권 스테이크 부장은 “이제 감서 스테이크에 모로나이의 깃발을 높이 들고 김두성 전임 스테이크 부장이 닦아 온 든든한 토대 위에 ‘감서 스테이크가’ ‘이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시기가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시운을 건설하는데 함께 동참하자”고 호소하였고, 브라운 장로는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가족이 신앙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엄건용)

새로 부름 받은 스테이크 부장김중

계명에 순종한다면...

손승주(신임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



“손 형제님, 주님께서 동대문 스테이크의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

장단의 베이트먼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말없이 한참 동안 베이트먼 장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트먼 장로님은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어 “장로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이트먼 장로님은 “인간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했던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님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베이트먼 장로님의 시선에 압도된 저는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손승은 초대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의 권고로 1961년 봄, 동대문 지부에서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청소년들에게 침례를 일찍 주지 않았으므로 1년 간 복음 토론을 하고 1962년 7월 21일 넬슨 장로와 제임스 장로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선더스 장로에 의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용두 와드의 전신인 동부 지부에서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은 주일학교 서기로 시작하여 신권회 서기, 유년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 고문, 한국 교회 최초로 조직된 보이 스카우트 서울 연맹 86대 대장(현재 해체됨)으로 부름 받아 봉사하였고, 주일학교 회장, 한국 최초로 조직된 시몬의 서울 스테이크 서울 와드(현 용두 와드)의 전임 김차봉 감독님(현 브리감 영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의 보좌, 동대문 전임 스테이크의 손승은 전임 스테이크 부장님의 보좌로 봉사하였으며, 개원된 동대문 스테이크 조만구 전임 스테이크 부장의 보좌로 9년 간 봉사했습니다.

저는 1975년 교회에서 만난 박남순 자매와 결혼하여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으며 둘 다 대학생이 되어 교회에 충실한 모습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철학을 때에는 신앙보다 친구들의 우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였고 철이 들었을 때에는 한동안 방황하다가 당시 감독이셨던 김차봉 형제님의 영향을 받아 비로소 신앙이 깊어지고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972년 새로 개원한 신학 연구원(당시 서울 시청 뒤 남강 빌딩 소재)의 교수님들의 가르침으로 잘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경의 니파이일서 1장 1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 저는 순종심이 강한 니파이를 존경하고 효심이 지극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지도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며 하나님의 사

람을 듬북 받는 니파이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베이트먼 장로님이 저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한다면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내가 일어나...”

김정권(신임 감서 스테이크 부장)



다메섹으로 향하던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게 된 사울의 신앙 고백이 떠오릅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하오리까”

(사도행전 9: 5-6 참조) 사울의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사도행전 9:6)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두 발로 굳게 일어설 때가 온 것입니다. “이는 시몬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어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몬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4) 주님께서 시몬이 이제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함의 옷을, 완전함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흠 없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흠 없는 흰옷을 입은 자야말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며, 곧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몬”(교리와 성약 97:21)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약을 맺고 성전 의식을 통하여 더욱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청소년들은 세미나리에, 모든 젊은이들은 신학연구원 대학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미나리는 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는 말일의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것이며, 신학연구원 대학부는 시온의 젊은이들에게는 물론의 샘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며 주님께서 "이제 보라, 만일 시온이 이 일을 행하면 번성할 것이요, 경계를 넓혀 심히 영화롭게 되며 심히 위대하게 되며 심히 두렵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7:18)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를 자가 성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명을 좇아 다메섹의 주님의 종 아나니아로부터 행할 것을 들은 것처럼, 시온의 백성들도 각자 그들이 거하는 성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이를 자로 지명된 주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종으로부터 행할 것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1853년 대회에서 당시의 사도의 한 분이었던 율슨 하이드 장로가 하신 말씀을 간증으로 전하면서,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 이 교회가 말일에 회복된 참된 주님의 교회이며 그분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더욱 느끼게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분이 행하신 설교를 간단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성을 이끌도록 성임을 받았다면 그는 환란과 시험을 거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그 직을 맡기에 합당함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가장 높은 정원회 앞에서 합당함을 증거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았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결코 그런 적이 없었으며 전능하신 이의 권고를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은 교회가 그를 알고 교회를 이끌 성품을 갖춘 사람입니다."(설교집 1권 123 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신학연구원

-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다.

신학연구원을 통해 구도자는 침례의 물가에 서게 되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활동적인 회원으로 변모되는 등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는 소식이 들렸다. 강릉 지방부 강릉의 지부에서의 일이다. 소식과 간증을 정리해 보았다.(편집자)



신학연구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강릉 지부 회원들

회원들을 영적으로 강화시킨 신학연구원

탁익형 장로

지부장이 되었을 때 저희 강릉 지부는 회원 참석이 저조했으며(15명 내외 참석) 활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연구원에도 한두 명 정도가 참석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왜 회원들이 성찬식과 신학연구원에 참석하지 않을까?' '왜 우리 강릉 지부는 활기가 없고 회원들은 힘들어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양식의 결핍 때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강릉 지부가 살 길은 예언자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님께서 강조하신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학연구원을 통해 회원들이 영적으로 강화되면 강릉 지부는 영적인 지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모든 구도자와 회원들이 신학연구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유했습니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도 참석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연구원을 통해 회원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스스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다른 회원들과 구도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성찬식 참석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신학연구원에 참석했던 구도자 세 명이 침례를 받았고, 활동이 저조했던 회원도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강릉에서 하는 신학연구원 수업에 20여 명(그 중 14명 정도가 강릉 지부 회원임)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말과 비교할 때 크나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교회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연구원을 통해 회원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되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활동화되며, 구도자가 침례를 받고 새로운 회원으로써 사랑 받으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신학연구원에 참여하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모든 지도자들이 신학연구원을 통해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회철 교수님과 회원들의 신앙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풍성하신 축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막상적인지식에서 실이있는 간증으로의 변화

김재경 형제



3월에 처음 지부장님으로부터 신학연구원이 개강하였으니 참석하라는 권고를 듣고 참석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사실 그

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었고 다시 지부장님을 만나서 토론을 하던 때였었는데 신학연구원에 가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직장 일이 끝난 후 거의 매일 지부장님과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학연구원에 몇 번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학연구원에 참석했을 때는 느낌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을 느꼈고 두 번, 세 번 참석할 때마다 그 느낌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처음엔 8~10명 참석하던 회원들도 이제는 20명 이상 참석하는 걸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같은 느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도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아주 훌륭한 회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곳에서 배우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제가 신학연구원에 참석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보람을 깊이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저의 신앙 생활도 달라지고 저의 표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학연구원은 앞으로도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에 있는 신학연구원 수업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신학연구원을 통해찾은새로운삶의방향

이승희 자매



신에 대한 의문은 목마름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책과 씨름, 깊은 사색과 탐문의 결과가 우리 교회에 첫걸음을 디디게 하였고, 이러한 갈증은 성경의 많은 진리의 말씀에 접하게 하였습니다. 침례 받기 전 신학연구원에 참석한 스스로의 결정을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근원에 대한 많은 물음과 해답을 이 성스러운 경전과 책들 속에서 발견하였고, 신학연구원 수업을 통해 어렵듯하게나마 조금씩 진리를 깨닫고 많은 것을 알아야겠다는 욕구로 인한 갈등의 해소, 좋은 느낌, 회개, 눈물, 사랑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학연구원 교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교훈, 삶의 의미, 생의 고통 등,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으로 끌어안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침례를 통해 모든 죄를 씻고 다시 거듭 날 수 있었으며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의주요인부분이된신학연구원



전숙자 자매

구도자 시절 선교사를 통해 신학연구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원했던 것을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신학연구원에 참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무척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도자 시절 신학연구원에 참석할 때는 다만 신앙의 첫발을 내딛는 단계였지만, 침례 받고 난 후 신학연구원에서도 다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접했을 때는 다른 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곳 신학연구원에서의 수업이 제가 생활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가르침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주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역원 변경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감독: 황금수
(전임자: 정희모)

부산 서 지방부
구포지부 지부장: 김일수
(전임자: 이진만)

대구 스테이크
영저 지부 지부장: 원종현
(전임자: 박재성)

교회에서 수재민 돕기에 3만 달러(3,879만원) 기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브라운 장로(가운데)가 조선일보 수재민 돕기 모금 장구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는 교회를 대표해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당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국내 최대 일간지인 조선일보사를 통해 수재민 돕기 성금을 3만 달러(3,879만 원)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교회 본부로 부터 한국의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특별히 기부된 것이었다. 이날 성금 기부에는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웅, 김종열 장로와 한국 관리본부 대표인 최운환 형제가 배석했다. 이날 성금을 기부한 것은 9월 5일자 조선일보 '수재민을 도읍시다' 난에 게재되었다. 한편 9월 첫째 주 일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엔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서 특별 금식을 했다.

광주 스테이크

목포.애남합동청소년대회

지난 8월 1일 광주 스테이크의 해남 지부와 목포 와드의 합동 청소년 대회가 목포에서 열렸다.

최낙현 감독의 감리하에 창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찾아보는 "소리를 찾아서"라는 장과 "구원의 계획"이라는 장의 내용으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구원의 계획에서는 세상적인 게임과 영적

인 게임을 통해 여러 상황을 체험하고 나중에 심판을 통해서 해, 달, 별의 왕국의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 때, 청소년들은 해의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며,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을 키울 수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해의 왕국실에 모여 간증 모임을 통해 서로의 간증과 깊은 신앙을 확인했다.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대회

지난 8월 11~14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 야영장에서는 대전 스테이크의 청남, 청녀들이 모여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40여 명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단합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이번 대회는 야영을 하면서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으며, 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로서 대회 다음날 군에 입대한 조동희 형제의 도움으로 각 대원들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오은주)

마산 스테이크

청소년대회

마산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8월 17~19일까지 경남 산청군 삼장면 괴음정 계곡에서 38명의 청소년 및 고문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 마음이 정직하며 상하여 있어 참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며 회생 곧 나 주가 명한 모든 회생을 바쳐 이로써 언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는 모두 내게 용납된 자니라" (교리와 성약 97:8)의 주제에 따라 스테이크에서는 8월 8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하여 오후 네시부터 각 와드/지부에서 봉사 활동을 하였다.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 대회를 통해 간증과 신앙을 키우고, 자신의 재능과 유사한 생각과 표준을 갖고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 새로이 사귀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서울 동 신학연구원

동창회

지난 8월 29일 서울 동 신학연구원에서는 "서울 동 신학연구원 동창회"라는 특별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서울 동 신학연구원을 졸업한 회원들로 구성된 본 동창회는 올해 초에 회장단이 새로 구성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칙을 정하고 구분동 회장을 비롯한 7명의 회장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동창회를 출범시켰다. 총회를 마친 동문들은 중부 신학연구원의 정태길 원장(총과 말일성도)와 박병규 한국 교회 교육 기구 대표(사해 두루마기)의 기념 특강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기회도 가졌다.

이 날 모임에는 약 6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회장단은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강과 활동을 통하여 동문들 간에 우정을 증진시키고 신앙을 발전시키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신학연구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신학원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함께 참석한 많은 신권 지도자들은 서울 동 신학연구원 동창회가 새로운 형태의 신선한 모임을 통해 한국 말일성도의 문화 형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동 신학연구원의 1992-1993년 졸업생과 1981년 이전 졸업생은 윤난영 자매(928-0033 동 신학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스테이크 목포 와드

대전 선교부장과의 특별 광장

지난 8월 25일 광주 스테이크 목포 와드에서는 와텔 대전 선교부장과 함께하는 모임을 가졌다. 영어 회화반 참석자들과 자매 선교사가 함께 부른 "바위섬"이라는 노래로 시작된 이 모임에서 와텔 자매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일 때 우리 마음속의 사랑은 더 쌓여 가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와텔 선교부장은 니파이사서 15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친절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먼저 사랑과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면 우리의 가정, 이웃, 더 넓게는 온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씀을 듣는 많은 회원들에게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말일성도들이 행해야 할 많은 모범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주영)

광주 스테이크

초등협회 여름 캠프

8월 10~11일에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초등협회 여름 캠프가 있었다. 참석한 50여 명의 어린이들은 초등협회 교사의 지도 아래 우유 팩을 재활용하여 필통 만들기, 이름과 함께 포토 배지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으며, 밤에는 부모님과 가족 곁을 떠나 교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의젓함을 보였다. 이번 캠프는 초등협회 어린이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박유미)

광주 신학연구원

교육의 날

지난 8월 22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광주 신학연구원 주최로 교육의 날 모임이 있었다. 먼저 요셉 스미스 영감의 소개와 문성업 형제의 '영어 습득의 필수 조건'이란 강연에 이어 전주 스테이크의 남삼수 자매 외도립 국악 단원들의 국악 소개와 연주가 있었다. 이어 교회 교육 기구의 박병규 대표는 사해 두루마리의 "역사적 의미와 신앙적 가치"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이날 모임은 광주 신학연구원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갖는 모임이어서 형제, 자매에게 복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하였다. (박유미)

광주 스테이크

선교기념일

지난 8월 30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광주 선교 기념일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먼저 최근에 침례 받은 회원인 최송욱 형제는 개종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 귀환 선교사 정수진 자매는 선교 사업을 통한 큰 기쁨과 완전한 개종에 대해 말씀했다. 김용진 스테이크 선교부장은 새로운 회원 활성화 방법과 비활동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선교 사업을 출발하는 강경남 형제는 선교 사업 준비 과정과 각오에 대해 말씀했다.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광주 스테이크 초기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에 대해 말씀했다.(박유미)

부산 스테이크, 부산 서 지방부

입동세미나리 경진퀴즈대회

지난 8월 21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부산 스테이크, 부산 서 지방부 합동 세미나리 물문경 퀴즈 대회가 열려 약 90여 명의 청소년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11개 팀이 참가하여 자웅을 겨루었다. 개인 경시대회에서는 1위에 대신 지부의 김혜용 형제가, 2위에 문천 와드 김성진 형제가, 3위에 대신 지부 김미경 자매가 각각 차지했다. 단체전 퀴즈 대회에서는 1위에 해운대 와드, 2위에 대신 지부 3위에 영도 지부가 차지했다.(이희숙)

부산 신학연구원

교육의날

지난 8월 30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부산 신학연구원 주최로 한국 교회 교육 기구의 박병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의 날 행사를 가졌다. 약 25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 부산 신학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조봉재 교수의 인사 말씀과 간증을 시작으로, 이순철 원장의

“배도의 결과와 말일에 회복된 복음의 간결하고 진귀한 부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박병규 교회 교육 기구 대표의 사해 두루마리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이희숙)

삼성에 근무하는 회원들 모임

삼성 그룹에 근무하는 회원들이 우정을 나누기 위해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서울 삼성 본관이 있는 태평로에서 7~8명의 회원들이 매달 첫째 주중에 모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우정을 증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구도자로 모임에 참석했던 유희상 형제(일산 와드)는 지난 8월 15일 침례를 받고 9월 모임에 참석하여 동료 회원들로부터 축하와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 또 그 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김강열 형제(잠실 와드)는 동료 회원들과 우정을 나눈 후 교회 성찬식에도 다시 참석하게 되어 이 모임을 더욱 뜻 깊게 했다. 김영식 형제(잠실 와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모임은 단순한 우정 증진의 차원을 넘어 선교 사업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참가자는 이 외에 유봉열 형제(불광 와드), 배동철 형제(일산 와드), 김철한 형제(강서 와드), 이운찬 형제(노량진 와드), 오승철 형제(상계 와드), 주구구 형제(영등 와드), 유정주 형제(잠실 와드) 등이며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김철한 형제(259-7793)에게 연락하면 된다

브리감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한인 클럽

브리감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는 70개국에서 온 2,2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한국인 학생들은 현재 57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 학교에서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럽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인 학생을 주축으로 한 코리안 클럽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클럽 활동으로는 한

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기, 클럽 회원 간의 우정 증진, 장학금 전달, 가스펠 포럼(Gospel Forum),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인 클럽에는 70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3월 초 새로운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다. 한국인 클럽 회장단에는 김진식 형제가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으며, 부회장에는 서용철 형제와 이미진 자매가, 총무에 김은희 자매, 활동 위원장에 케올라 형제(서울 선교부 귀환 선교사)와 김현경 자매, 서기엔 정수연 자매가 봉사하고 있다. 김진식 회장을 비롯한 모든 클럽 회원들은 한국인 한 사람의 행동이 곧 한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한국인들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 3월 브리감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총학생 총회장단 선출이 있었으며, 박준현 형제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준현 형제의 부회장 선출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위한 의미 있는 선거였다. 우선은 비영어권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학생 회장단에 선출되어 동양 학생 전체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성구 형제(Information Systems 전공)를 주축으로 한국인 클럽 홈페이지가 제작되었는데, 브리감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 관심 있는 한국의 많은 회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 클럽 회장단, 왼쪽부터, 김진식(회장), 강진희, 케올라, 서용철, 정수연, 김현경, 이미진

웹사이트 주소 :

<http://www.bus.byuh.edu/kim-seongkoo>

아직 깨닫지 못하는 도다

만덕성(서울 북스테이크 가게 지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린아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시며 또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셨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도다”(교리와 성약 78:17)

아직 봄 기운이 느껴지기 힘든 3월 말 금요일.

내일은 쉬는 날이구나. 다소 긴장이 풀어진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다소 들뜬 목소리로 “대희(막내)가 휴가 나온대요!” 하며 모처럼 집에 오는 외아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휴가를 얻어 나온 막내와 함께 저녁을 하려는데, 걸려 온 전화는 “내일 입원 준비하셔서 오후 1시까지 병원으로 오십시오”라는 전갈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미뤄온 입원 일자지만 하필 토요일에 입원이라니.

좋아하는 운동을 심하게 한 탓이었는지 무릎 인대가 끊어지고 관절이 상했으며 또 등근뼈가 깨진 무릎 때문에 진찰을 받고 입원 신청을 한 지 2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음날 입원을 하여 이튿날까지 거의 쉴새 없이 X-RAY 촬영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푸른 병원복을 입고 사흘째 되던 날인 월요일 아침에 회진을 하던 의사는 “내일 수술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성전으로 형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열 시쯤 성전 선교사이신 73세의 글리스피(Gillespie)장로님과 함께 형님이 오셨고, 두 분은 곧 제게 “기름 축복”을 해주셨

습니다.

오후 여섯 시쯤, 담당 의사 세 분이 한 팀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환자 분께서는 인대 봉합 수술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냥 퇴행성 관절만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인대가 오래되고 약해서 봉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만 수술을 할 텐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내시경으로 관절만 수술하면 간단하게 약 20분에서 25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녁 아홉 시에 또 세 분의 의사가 한 팀이 되어 찾아와서는 똑같은 말을 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의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대 봉합 수술을 못하면 후에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 다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수술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는 항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이해시켜 두려는 요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받겠다는 확인을 받고 의사들이 간 후 저는 심한 갈등과 상심으로 큰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직 60도 안 된 나이에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니, 목발,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사람들이 열 시가 조금 넘어서 바퀴 달린 침대를 가져와서 나를 옮겨 싣더니 수술실로 갔습니다. 큰 병의 주사액이 제 팔뚝으로 흘러 들어왔고, 잠시 후 허리가 따끔한 걸 느끼고 곧 하체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술 전날 제게 찾아온 간호사와 몇 마디 주고받은 얘기대로 좋은 음악이 수술실에 퍼졌습니다. 어렴풋한 정신 속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의 소리에 참 좋은 기분으로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서 “50분 경과했습니다” 하는 소리와 “인대가 참 튼튼하다”는 등의 소리를 들으며 또 눈을 감았습니다.

“120분 경과, 150분 경과.” 이런 소리들을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느끼면서 몽롱한 정신인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 의사 한 분이 내 머리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수술이 잘되었습니다. 지팡이는커녕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회복실로 옮겨!”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시간 30분이나 수술을 받은 것임니다.

포기했던 인대가 모두 봉합되고 깨진 뼈가 모두 꿰매어졌고 물론 관절도 온전한 상태로 수술을 받은 것인데, 그 시간이 25분이 아닌 3시간 30분이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면서 마취가 풀리는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축구도 할 수 있다’는 기쁨보다 더 큰 감사함으로 종일 기도했습니다.

기름으로 축복하시던 말씀들 ..., “참여하는 모든 의사들의 재능들을 축복하시고 ... 도와 주는 모든 간호사들과 ...”

심지어 핀셋 하나하나까지 축복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중의 구절들이 가슴이 벅차도록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어제는 탁구도 쳤습니다.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네가 놀라라...” 저녁을 짓는 자매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저와 제 가족에게 주시는 큰 축복에 감사합니다.

제 형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갖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